



요정이 도깨비로 변신

푸른연극마을 '한 여름밤의 꿈', 10~14일 동산아트홀

셰익스피어의 연극 작품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 무대에 올려진다. 유쾌한 희극 '한여름밤의 꿈' 역시 극단 '여행자' 등 다양한 단체들이 재해석, 색다른 감동을 전해준 작품이다.

광주에서 활동하는 극단 푸른연극마을이 자신들의 색깔을 입힌 '한여름밤의 꿈'을 공연한다. 10일~14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3시·7시 유·스퀘어문화관 동산아트홀.

푸른연극마을은 보통 극장에서 관객들이 접하는 무대를 해체하고 대신 별·달·풀벌레가 소리가 가득한 한여름밤 숲속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무대를 공간 중앙에 배치했다.

이번에 무대에 올려지는 작품은 노래와 음악, 춤, 가면극이 어우러진 가무극이다.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근간으로 삼되, 전래 설화 중 '아사달과 아사녀'의 이야기를 다룬 '무영탑'을 극중극 형식으로 재구성했고 원작에 등장하는 요정을 도깨비로 변화시켰다.

엇갈린 사랑을 나누는 네명의 주인공인 이지아스, 허미아, 라이센더, 디미트리야스를 낚아, 아루, 바루, 비비 등 우리식으로 변화시킨 것도 특징이다.

마을 유지 허교루의 외동딸 낚하는 아버지가 결혼하기를 원하는 바루 대신 이투와 사랑에 빠져있다. 오직 낚하고 혼인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바루에게는 그를 열렬히 사랑하는 비비가 있다. 네 사람의 엇갈린 사랑은 결국 한여름밤의 한바탕 유쾌한 소동을 만들어낸다.

극단 대표 오성완씨가 연출과 각색을 맡았으며 오대표를 비롯해 김병대·정일현·양선현·정봉관·정사현·김다솔씨 등이 출연한다. 음악은 박양희씨가 맡았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 16개국 예술인들이 함께

무용작품 창작의 첫걸음

안무계획안 국제공모 10월 31일까지 마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한국·인도·말레이사등 아시아 16개국 예술인들이 함께 작업하는 아시아 무용작품의 개발을 위한 안무계획안을 국제 공모한다.

아시아 문화의 가치를 잘 드러낼 수 있는 무용작품, 아시아 지역의 신화 및 설화 등 이야기 자원을 주제로 한 무용작품, 또는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전통무용 양식을 활용할 수 있는 무용작품이 대상이다.

마감은 오는 10월 31일이며 1등에게 상금 8천달러를 수여한다.

선정된 안무계획안은 2012년도 위원회가 추진할 사업인 '아시아 무용 워크숍' 등을 통해,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16개국 무용수들이 참여하게 될 (가칭)아시아 무용단의 레퍼토리로 개발, 활용된다. 문의 02-3216-118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가 7명이 만든 밴드 '머지'(MUZI)

붓 대신 기타·드럼·건반...

작가들의 시원한 연주 들어볼까

“당~다다닥~탕탕탕! 바퀴 달린 목마야 무엇을 가져왔니, 이 불에 무엇을 가져왔니, 너의 머리는 너무 빛나고, 탕탕탕! 당~다다닥.”

지난 1일 오후 2시, 광주 대인시장 한 상가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아트스페이스 미테'(대표 조승기)에서는 밴드의 신나는 연주가 울려 퍼졌다. 한 바탕 북소리가 휘몰아친 뒤 연주자들은 음악에 맞춰 시를 낭송하듯, 천천히 가사를 읊조렸다.

과거 카바레였던 이곳에서는 한 달 전부터 오후만 되면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자의 작업실에서 작품을 창작하던 화가와 조각가, 사진작가들이 오후만 되면 이곳으로 몰려들고 있다. 손에는 붓 대신 기타와 드럼sticks를 들었다. 이들은 최근 결성된 작가 밴드 '머지'(MUZI)의 단원들이다.

“머지”는 지하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지어진 갤러리 '미테'(mite), '미테'보다 위에 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커뮤니티 카페 '우그로'(ugro), 인근의 게스트하우스 '자자'(zaza)의 앞골자에서 뒤편이다.

또 국내외 작가들이 협업을 통해 음악을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퍼포먼스로 연출하는데,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프로젝트이기에 '뮤지'라며 의아해하는 타인의 반응도 익살스럽게 담고 있다.

“머지”에는 이승일(드럼·서양화, 사진)·설박(드럼·한국화가)·타시카(건

반·시각디자인·태극)·양예림(건반·통역)·로이스 영(드럼과 기타·호주)·김예지(타악기·사진)·김현돈(조각·각국)씨 등 7명의 작가들이 의기투합해 손을 맞춰보고 있다.

기타, 드럼, 건반을 연주할 줄 아는 로이스 영과 타시카가 다른 단원들에게 약기 연주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있다. 또 몇몇 단원은 전혀 악기를 다뤄본 적이 없어, 뱀비 등을 두드

“신나게 두드리니 창작이 술술” 내면 표현 비슷

6일 콘스트할레서, 이달 말께는 도심 거리 공연

려 소리를 내는 타악 연주를 맡았다.

설박씨는 “붓이 아닌 악기라는 표현 매개체가 달라졌을 뿐 음악과 미술은 자유분방하고 내면을 표현하는 점에서는 비슷하다”면서 “신나게 두드리다 보면, 머리가 시원해져 창작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매일 오후 3시에 모여 2~3시간 연습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곡의 노래도 작곡했다. 로이스 영이 만든 곡에 다른 단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가사를 붙였다.

신나는 타악기 연주가 돋보이는 ‘트로이 목마’(가제)는 유목민의 삶을 담고 있고, ‘남자와 불빛’은 여행에 대한

철학적인 이미지를 그리고 있다.

타시카씨는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프로젝트다. 언어는 달라도 음악을 통해 서로 생각을 주고 받을 수 있어 행복하다”고 밝혔다.

“머지”는 이 두 노래를 가지고 오는 6일 로이스 영의 전시가 열리는 광주시 동구 ‘아시아문화마루’(콘스트할레 광주)에서 공연도 갖는다. 이달 말께에는 3.5t 트럭에 악기를 싣고, 광주도

심과 공원 등지를 돌며 거리 공연도 펼친다. 또 태극과 일본을 도는 해외순회 공연은 장기 목표이며, 뮤직비디오도 제작할 계획이다.

조승기 대표는 “미술 작업을 하던 작가들이기에 전문 연주는 힘들지만, 음악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퍼포먼스이기에 매우 즐거운 공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1일 광주 대인시장 '미테'에서 화가와 조각가 등이 모여 만든 아트 밴드 '머지' 단원들이 연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이스 영·양예림·김예지·이승일·설박·타시카씨.



도자기에 자음과 모음이

안경미 개인전, 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

한글 자음과 모음을 모티브로 한 이색 도자기를 선보이고 있는 안경미씨가 오는 8일까지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 안씨는 도자기의 한 면에 한글 형태의 공간을 뚫어 도자기의 조형미와 공간을 대비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도자기는 흔히 안과 밖의 구분이 확연한데, 안씨의 작품은 의도적으로 한 쪽 면에 공간을 낸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 공간은 ‘ㅣ’ ‘ㄴ’ ‘ㄷ’ 등 한글 자모 형태를 띠고 있고, 도자기 외벽 밖으로 튀어나와 있어 독특한 질감을 선사한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학교를 졸업한 뒤 조선대 디자인 경영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조선대, 호남대 미술대학 시간강사를 역임했다. 뉴욕, 일본, 한국에서 수차례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2-736-10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아시아문화예술 시민활동가 배출

6일 조선대서 교육생 45명 수료식

‘2011 아시아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시민문화활동가 과정 교육생 수료식이 오는 6일 오후 2시 조선대에서 열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시민을 대상으로 매년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으며 2011년도 사업은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주관했다.

수료식에는 활동가 과정 교육생 45명이 참석한다. 교육생들은 국립현대미술관장 배수훈, 이노디자인 대표 김영세,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감독 이재진, 부산 국제영화제 프로그래머 전찬일 등 문화계인사들로부터 강의를 들었다.

수료생들은 문화활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게 되며 수료식이 끝난 후에도 시민문화활동가 수강생 중 일부는 기획운영자 과정 프로젝트에 참여, 시민문화활동가로서 역할을 키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5~27일 지리산서 2박 3일 ‘문학캠프’

인터넷서점 예스24는 오는 25~27일 2박3일간 지리산에서 문학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에는 독자 200명이 함께 하며 예스24 이용객 3만6000명이 한국의 젊은 작가로 선정된 박민규 작가와 제12회 문학동네 소설수상작 ‘캐비닛’의 김연수 작가가 첫날 행사에 참여한다.

둘째 날인 26일에는 공지영 작가와 지리산에 거주하고 있는 이원규, 박남준 시인이 독자와 이야기를 나눈다.

예스24는 지역 주민을 위해 도서 1천 권도 전달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since 2005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기동 [12층관할호] 대1846m2, 27842m2 감평가 90억 최저가 50억	신안동 [4층근린시설] 대385m2, 21191m2 감평가 8억4천 최저가 3억9천	용양동 [원룸] 대201m2, 24465m2 감평가 3억7천 최저가 2억6천	일곡동 [원룸] 대199m2, 23345m2 감평가 3억1천 최저가 2억2천	목포해안동 [모텔] 대830m2, 232767m2 감평가 25억2천 최저가 11억3천	담양읍성 [온천] 대93527m2, 210821m2 감평가 156억8천 최저가 108억7천
계림동 [의료시설] 대837m2, 24084m2 감평가 32억1천 최저가 14억4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광주옥동 공장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건물879평 ▷감평가 15억4천 ▷매매가 9억 (협의후결정)	해남 땅굴콘도 ▷대지 2284평 ▷건물 2654평 ▷감평가 83억 ▷매매가 35억 (협의후결정)	전주 의왕물류센터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감평가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청주 사우나 주차빌딩 ▷대지 402평 ▷건물 3727평 ▷감평가 92억6천 ▷매매가 33억 (협의후결정)
곡성석곡 공장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감평가 44억3천 ▷매매가 20억 (협의후결정)	전북완주 봉동 공장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감평가 135억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용인 골프레지던스 ▷대지 29917평 ▷건물 4575평 ▷감평가 713억4천 ▷매매가 250억 (협의후결정)	남원 공장부지 ▷대지 2460평 ▷건물 1013평 ▷감평가 21억3천 ▷매매가 10억 (협의후결정)

근린시설/원룸	김태호전문이사 011-684-3886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정이사 010-5879-0005
신안동 대261, 21259 3억7천 2억8천 주택임대건물 4층고도원 신안동 대219, 21492 4억8천 3억2천 편의점4층건물 신안동 대254, 21787 5억1천 3억6천 신안동 대201, 21140 3억7천 2억6천 신안동 대203, 21647 3억6천 2억1천 신안동 대126, 21342 2억1천 1억4천 신안동 대222, 21991 6억2천 2억8천 신안동 대239, 21526 4억5천 3억2천 신안동 대199, 21945 3억1천 2억2천 신안동 대385, 21191 8억9천 3억9천	신안동 대221, 21732 5억9천 3억9천 신안동 대293, 21772 6억 2억8천 신안동 대272, 21673 3억7천 2억1천 신안동 대331, 21019 5억5천 2억8천 신안동 대272, 21030 7억5천 4억2천 신안동 대171, 21663 20억 8억9천 신안동 대241, 21690 9억 4억 신안동 대183, 21380 4억4천 2억 신안동 대126, 21206 5억 1억7천 신안동 대156, 21313 2억5천 1억1천	신안동 대1699, 21463 7억 4억9천 신안동 대2779, 213524 20억 7억3천 신안동 대2906 15억17천 8억8천 신안동 대17304, 212982 18억 13억 신안동 대5906, 215048 35억 24억 신안동 대4284, 212720 14억 5억9천 신안동 대27849 7억 3억9천 신안동 대189 1억3천 신안동 대526 2억 7천1백	신안동 대221, 21732 5억9천 3억9천 신안동 대293, 21772 6억 2억8천 신안동 대272, 21673 3억7천 2억1천 신안동 대331, 21019 5억5천 2억8천 신안동 대272, 21030 7억5천 4억2천 신안동 대171, 21663 20억 8억9천 신안동 대241, 21690 9억 4억 신안동 대183, 21380 4억4천 2억 신안동 대126, 21206 5억 1억7천 신안동 대156, 21313 2억5천 1억1천	신안동 대1699, 21463 7억 4억9천 신안동 대2779, 213524 20억 7억3천 신안동 대2906 15억17천 8억8천 신안동 대17304, 212982 18억 13억 신안동 대5906, 215048 35억 24억 신안동 대4284, 212720 14억 5억9천 신안동 대27849 7억 3억9천 신안동 대189 1억3천 신안동 대526 2억 7천1백	신안동 대221, 21732 5억9천 3억9천 신안동 대293, 21772 6억 2억8천 신안동 대272, 21673 3억7천 2억1천 신안동 대331, 21019 5억5천 2억8천 신안동 대272, 21030 7억5천 4억2천 신안동 대171, 21663 20억 8억9천 신안동 대241, 21690 9억 4억 신안동 대183, 21380 4억4천 2억 신안동 대126, 21206 5억 1억7천 신안동 대156, 21313 2억5천 1억1천

아파트/빌라 양촌협합장 010-3171-6536 주택/재개발 양촌협합장 010-3171-6536 근린주택 정이사 010-5879-0005	병원, 교회, 사옥, 모텔,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경제전문가(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반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	---	---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매매

- ▶ 산할IC 교통광장 접코너
- ▶ 면적: 700평, 1350평 분할가 광고효과 최고!!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하순 복면 수련원, 요양원, 기도원 부지 매매

- ▶ 임야: 470,000평, 단층건물: 250평 (5동)
- ▶ 단지내 도로개설될 소나무, 산악초 재배단지
- ▶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신안동 토지매매(상업지역)

- ▶ 대 지: 250평 (30×8코너)
- ▶ 가로32m, 세로26m (분할가능)
- ▶ 급 매: 매매가격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공장(창고)급매

- ▶ 대 지: 538평, 680평, 1000평
- ▶ 건 물: 300평, 200평, 200평
- ▶ 높 이: 8.9, 10.9m
- ▶ 호이스트: 유, 유, 유
- ▶ 매매가격: 협의후결정

문의: ☎ 016-644-4265, FAX.523-8558

토 지 매 매

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 대 지 : 4,000평
- 전 : 9,500평
- 합 계 : 13,500평
- 매매가 : 협의 후 결정

▷ 광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 I.C 입구)

▷ 광주에서 8분거리

공동중개환영

길잡이공인중개사

• 상표등록 : 41-0163369호 •

☎ 011-620-3960 ☎ 062-381-6000

(상무지구 5.18기념 공원사거리)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

주시내권 및 시외순번으로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

물 사실분과 연일 분 손님

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

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

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

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 (FAX) 223-1772 ☎ 011-602-2532

(광주은행 신봉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